

전부 무치악 케이스 브레네막 임프란트 시술시의 새로운 접근방법

경북대학교 보철학교실 김진태, 조성암

종래의 전부 무치악 브레네막 임프란트 보철물은 주로 Mental Foramen 사이의 골을 이용하여 5개나 6개의 픽스처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Cantilever식의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철물은 소구치 교합을 형성하게 되므로 대구치교합을 시킬수없는 단점이 있었다.

더구나 임프란트 식립이 일자형으로 된 경우에는 그나마 구치부 교합마저 시키기 어려웠다.

Mental foramen 후방에의 임프란트 식립과 더불어 이의 고정성보철물로서 수복은 악궁의 변이에 따른 임프란트 픽스처에의 스트레스 집중이라는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연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Mental Foramen 후방에 픽스처를 삽입하고 이를 2부분으로 나누어서 대구치 교합을 시키고자하였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임상케이스의 축적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